 관계부처 합 동	<h1>보도 자료</h1> <h2>8월 3일(월) 조간 (8.2. 12:00 이후 보도)</h2>		
	배 포 일 2020. 7. 31. / (총 5매)		
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	과 장	정은영	044-202-2920
	담 당 자	이정민	044-202-2923
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바이오기반팀	과 장	정연웅	044-202-4560
	담 당 자	정재식	044-202-4561
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단	단 장	목인희	02-920-5569

전주기 치매극복기술 개발을 위한 「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」 출범

- 9년간('20~'28년) 치매 예방·진단·치료 분야에 총 1,987억 원 본격 지원 시작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)은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(18.11)에 따라 치매 예방·진단·치료 등에 걸친 종합적 연구개발(R&D)을 지원하기 위하여 『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단(단장 서울대 목인희 교수)』을 출범한다고 밝혔다.
-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상반기 사업단(장) 공모 과정과 서면 및 구두 평가,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사업단을 선정하였다.
-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 질환 극복기술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,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9년간('20~'28) 총사업비 1,987억 원(국비 1,694억 원)을 투자할 예정이다.
- 사업단은 ①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②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③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.

①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(국비 451억 원)

치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근본적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병원인 및 기전 규명, 치매오믹스 분석 등 4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.

②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(국비 508억 원)

치매가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운 신경세포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를 발병 전에 예측하거나 발병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 혈액,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기술,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등 8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.

③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(국비 609억 원)

새로운 치매 발병 가설에 기반한 신규 치료제 개발이나, 치매 위험인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기술 개발 등 치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매 치료제 개발, 뇌내 약물전달 기술개발 등 3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.

□ 세부 분야별 연구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기획한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단에서 현재 글로벌 동향 등을 반영하여 세부기획안을 마련한 뒤 8~9월 중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할 예정이다.

□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치매 발병을 5년 지연하고 연간 치매 환자 증가속도를 50% 감소시킴으로써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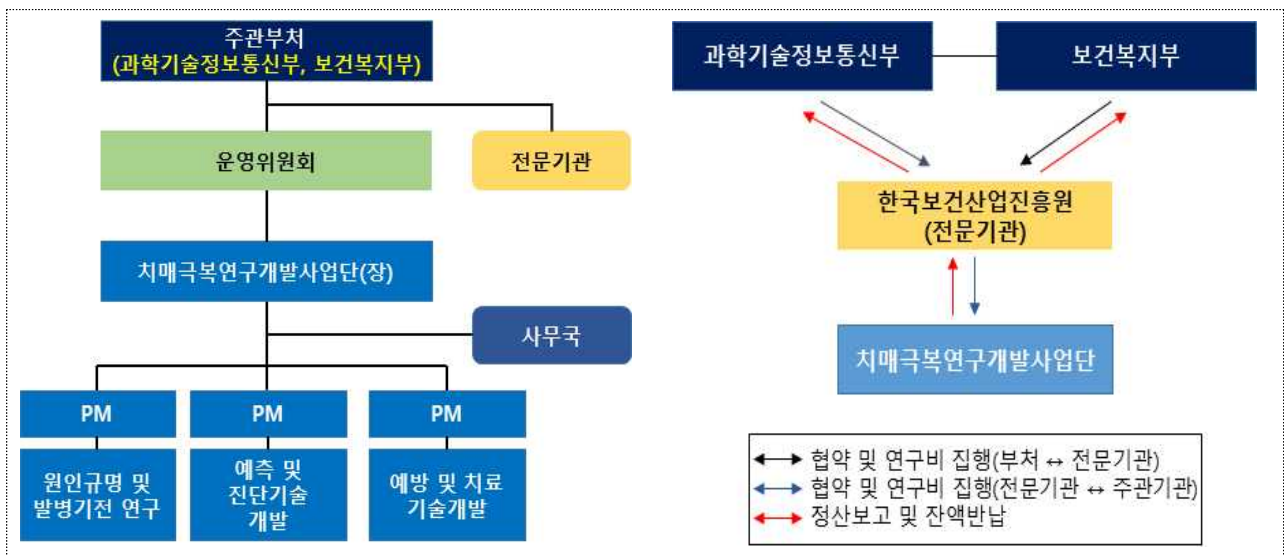
-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사업단 출범을 축하하며, “사업단이 기초연구가 실용화로 연계되는 가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가속화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“치매는 증상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·치료기술 확보가 핵심”이라며, 기초원천연구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임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전주기 사업단을 통해 국민 치매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- <붙임> 1.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개요
2. 사업단 지원규모 및 내용

붙임 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'20~'28년(9년)
- 사업규모 : 총사업비 **1,987억 원**(국고(복지부·과기부) 1,694억 + 민간 293억)
* '20년 예산 59억 원 (복지부 29.5억 원, 과기부 29.5억 원)
- 사업내용
 - (목적) 치매의 원인규명, 조기에측·진단, 예방·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치매질환 극복,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
 - (대상) 경도인지장애, 알츠하이머·혈관성·루이소체 치매 등 모든 치매
- 사업 추진체계



- (운영위원회)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* 심의·의결
 - * 중장기 투자방향, 시행계획, 사업 운영 및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심의·의결
- (사업단) 주관연구기관(학·연·병 등) 소속으로 사업단을 구성·운영
 - * (사무국) 사업단의 예산관리, 세부과제 평가, 성과관리 등 사업단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행정업무 담당
- (전문기관) 총괄협약 및 사업단 예산, 세부과제 선정평가, 사업단 중간·최종평가 등 관리 총괄

붙임 2 사업단 지원규모 및 내용

- (지원규모) 총 1,694억 원(국고) 이내, 9년(3+3+3년, 3단계) 이내 지원
- (지원내용) 3개 중점분야, 15개 중점기술개발

중점분야 (억원)	중점기술개발 (억원)	지원예정 과제수	지원내용
1. 원인 규명 및 발병 기전 연구 (451억 원 이내)	1-1.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(330억 원 이내)	36	다양한 치매유형 분석, 치매의 발병 기전에 대한 규명 및 고도화 연구
	1-2. 치매오믹스 분석 연구 (72억 이내)	1	유전체 분석 활용한 치매 고위험요인 발굴
	1-3.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 (24억 이내)	4	치매 고위험군의 특성(연령, 성별, 보유질환 등)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규명
	1-4.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 (25억 원 이내)	4	인지예비능과 환경의 영향 분석, 치매 보호인자 탐색 연구
2.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(508억 원 이내)	2-1. 혈액, 체액기반 치매조기진단기술 (156억 원 이내)	10	침습성이 낮은 혈액·체액을 활용, 간편하고 저렴하며 정확도가 높은 치매 진단기술 개발
	2-2. 치매 특이적 영상 진단용 방사성 약품개발(58억 원 이내)	4	민감도와 특이도가 향상된 영상 진단기술 개발
	2-3.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(58억 원 이내)	4	뇌영상 검사기술을 개발·검증하여 치매유형, 진행상태별 진단기술 고도화
	2-4. 생체신호, 감각기능 기반 치매진단기술 (18억 원 이내)	2	다중 생체신호(뇌파, 맥파, 체온, 심 전도 등) 분석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
	2-5. 한국형 선별검사도구 표준화 (13.5억 원 이내)	2	한국형 치매 선별검사 표준 지침서의 개발 및 고도화
	2-6. 뇌척수액 검사 기술표준화(19.5억 원 이내)	2	뇌척수액 채취 용이성 향상기술 개발 및 뇌척수액 내 치매 진단지표 발굴 연구
	2-7. 기초·임상연구 레지스트리 (TRR) 구축 (162억 원 이내)	1	치매 연구성과의 빠른 검증, 실용화를 위한 임상연구플랫폼 구축
	2-8. 치매연구정보 통합·연계시스템 (DPK) 구축 (23억 원 이내)	1	치매 연구자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
3.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(609억 원 이내)	3-1. 치매치료제 개발 (510억 원 이내)	28	다양한 타겟 활용 및 신약 재창출을 통한 근원적 치매치료제 개발
	3-2. 뇌 내 약물전달기술 개발 (87억 원 이내)	4	치매치료제의 뇌투과율 향상을 위한 약물전달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
	3-3. 한국형 치매예방법 표준화 및 고도화 (12억 원 이내)	2	한국형 치매 예방·관리 프로그램 개발· 확산 및 이와 접목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하여 예방·관리 프로그램 고도화